구세주는 소사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흰돌(계 2:17)은 소사(素砂)를 뜻하며, 그 흰돌을 받은 자가 구세주이다

'나'를 버리는 투쟁을 시간시간 해서 하루속히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제거함으로써 성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나'를 이긴 사람이 이 땅에 출현하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가 이슬을 증표로 오신 계시록의 이긴자입니다.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따라서 일어납니다. 태초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이겼지만 이제는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위에 계란 만 개를 던져도 계란만 깨지지 바위는 끄떡없습니다. 지켜보면 알겠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며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려서 올라간다"는 계시록의 귀절은 마귀의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최후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급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를 하고 별의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여유있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여지없이 부수어 버립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승리제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기필코 마귀를 부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들 하지만 왜 마귀의 세상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주체 영이 마귀의 영이요, 그 주체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체 영이 마귀이므로 학문이 마귀의 학문이요 종교가 마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나와야 진리의 학문인 하나님의 학문을 선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심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방해를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저항이 없으면 더디게 이루어지지만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으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 그것은 바로 '나(我相)'입니다

'죄'가 곧 '나의 의식'이요, '나의 의식'은 마귀이므로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이 석방되어 나와서 '나의 의식'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것이 되고, 부활함을 입은 것이 되고, 믿음을 가진 것이 됩니다. 이와같이 '나의 의식'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으로 거듭났다'가 되며 이것이 성령회복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제거하는 투쟁을 시간시간 해서 하루속히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나'를 제거함으로써 '나라는 주체 의식'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나니라'의 구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면 영생의 하나님이 되고, 마귀를 이기신 완성의 이긴자 하나님의 영이 되므로 믿음을 얻은, 생명과일을 먹은 것이 되면서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증표는 이슬성신(감로)입니다

구세주는 증표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증표가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라고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불경에도 '감로(甘露)를 들고 나오는 자가 생미륵불이다.' '감로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그가 출현하면 이 세상 만물이 이슬로 인하여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슬을 들고 나오는 자가 구세주요, 생미륵불이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구세주인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계시므로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영(靈)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므로 성도들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슬이 찍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성도들에게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긴자에게 흰 돌을 준다'고 했는데 그 흰 돌은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흰 돌 위에 쓴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구세주입니다. 흰 돌 위에는 '소사(素砂)'라고 적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격암유록이나 정감록 비결에도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룡백석(鷄龍白石)이라는 말에서 흰 백(白)자가 바로 흴 소(素)자와 같은 뜻입니다. 흰 백(白)자와 흴 (소)素가 같다면 소석(素石)이라는 말이 되지만 모래 사(砂)자가 '작은 돌'이므로 소사(素砂) 즉 '흰 돌'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은 소사(素砂)가 흰 돌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긴자는 소사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흰 돌이 바로 소사이므로 소사에 제단을 크게 짓고 이 소사에서 천지공사를 하는 자가 구세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긴자인 것입니다.

격암유록의 예언대로 구세주는 신미생(辛未生)으로 태어났고 신미생은 양띠인데 성경에도 구원을 얻는 무리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양의 달인 6월에 태어났으며, 별의 날인 28일에 태어났습니다. 또한 새벽 4시에 태어나서 금운(金運)으로 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긴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금성(金星)과 효성(曉星)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밝은 별'에 해당하는 이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별이란 뜻의 '빛날 희(熙)'와 '별 성(星)'입니다. 새벽별은 빛나는 별, 밝게 비치는 별입니다. 이로써 구세주 하나님이 '조희성' 속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구세주가 모퉁이 땅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리니 열국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일으키리니…(이 49:16)'

모퉁이 땅에서 불러 일으킨다고 한 것은 모퉁이 땅에서 구세주가 될 사람이 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동방의 땅 끝 땅 모퉁이인 한국의 경기도 김포입니다. 김포는 동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북쪽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서쪽은 서해가 있으므로 조그마한 모퉁이 땅입니다.

'단'이 동쪽으로 옮겨 대동강에 자리잡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열두 아들 중에 서 '단'에게만 심판권을 주었습니다.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첩경에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리리라(창 49:16)'

단이 첩경에 독사가 된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독사를 마귀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비밀로 한 말씀입니다. 단에게 심판권을 주었으면 단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단지파인 한국 사람들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숨겨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독사의 참의미를 알아보자. 독(毒)자는 '임금 주(主)'와 '어미 모(母)'가 합쳐서 된 글자이므로 임금은 임금인데 인류의 엄마라는 뜻이요, 사(蛇)자는 뱀 사(蛇)자 인데 '벌레 충'과 관머리 아래 의자 하나를 그려 놓은 모양입니다. '벌레 충'은 사각에다가 일자를 내리긋고 드러누운 일자를 쓰고 점을 찍었습니다. 임금 왕(王)자를 쓸 때 제일 먼저 드러누운 일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네 생물의 왕이 왕중왕이 되어 의자에 앉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세상 인류의 임금이요, 인류와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영적 엄마가 네 생물의 왕이 되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독사인 왕이 말탄 자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마귀를 떨어뜨려서 죽여 버린다는 뜻입니다. 가짜 왕을 죽여 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6천 년(성경의 역사는 6천년임) 동안 힘과 능력을 키워 6천 년만에 완성의 이긴자 하나님이 되어 오늘날 한국 땅 소사에서 마귀세상을 완전히 둘러엎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희성님의 발자취

피땀으로 가르치니 학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논산 훈련소에서 독도법 교관으로 지냈다. 보통 한 기수 당 300명씩 훈련병들을 교육시켰다. 평상시 정규 교육 시간을 끝내고 간간이 박태선 장로와 전도관에 대한 진리를 전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훈련병 중에는 신학교 졸업생, 재학생 및 목사, 전도사였던 자가 있었다. 교육 외에 별도로 전도를 하므로 군종참모에게 연락이 되고 또 그 위의 높은 사람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었다. 그러면 직속상관한테 불려가서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이고 호된 따귀를 맞으며 여러 번 주의를 받기도 했다.

낮에는 신병을 훈련시키면서 간간이 전도하고, 밤이면 마을 청년들을 모아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면서 전도관을 알리고 제단도 개척하였다. 때로는 장교복을 입은 채 북을 치며 동네를 돌며 전도를 하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상관이 되는 대대장 연대장이 군 장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특정 종교를 전도한다 하여 수차례 주의 경고를 하였다.

그래도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하니 급기야 영창에 가두고 재판을 받게 한 일이 있었다.

성경 상의 오실 인자(人者)가 되는 하늘의 사람 박태선 장로님을 알리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자 의무라 생각하여 조금도 주저함과 두려움이 없었다. 재판에 회부되어도 재판정에서 당당히 서서 스스로 변론하기를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지휘각서 몇 조 몇 항의 '모든 지도자 위치에 있는 군경(軍警)들은 주민들을 계몽·교화하라'는 명령에 의하여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교화한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훈련소 소장이었던 백 소장이 재판관들과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상의한 후, 그런 지휘각서가 하달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무죄 판결하여 석방시켰다.

그때 이 사람을 구타하고 영창에 집어 넣었던 기성 교회 장로들인 중령, 대령 직속상관과 훈련소 소장 백 소장은 혹시 이 일로 자기들의 신분이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이 사람에게 선물도 보내고 음식도 대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같은 군인으로서 개인적인 앙갚음으로 선배 장교님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짓은 절대 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하늘의 사람 영모님과 전도관의 역사가 성경에 예언된 것임을 너무도 분명히 아는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학교와 전도관을 세우고 틈만 있으면 전도를 하였다. 장교의 체면과 위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근 마을에 안 들어간 집이 없을 정도로 전도에 열성적이었다.

당시 세운 금마전도관. 맨 왼쪽 양복을 입은 분(조희성 선생)

한 사람의 희생으로 배우는 많은 학생들을 분발케 하다

논산에서도 낮에는 군영 생활에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퇴근하여 밤늦게까지 민간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 나가니까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 잠을 제대로 못 자므로 피곤이 겹쳤나보다. 어느 날은 늦잠을 자고 급히 서둘러서 출근하는 바람에 이부자리를 살펴보지 않고 나갔는데 전날 밤 코피를 쏟아 베개가 온통 피범벅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오후 5시가 되어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10리 길을 구보로 뛰어 재건학교에 도착하니 학생 2~300명이 이 사람을 부둥켜안고 통곡을 하며 울먹였다. "왜들 이러느냐?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고 의아해서 물어보니, 코피로 물들은 이 사람의 베개를 들고 와서 부둥켜안고 또 다시 펑펑 우는 것이었다. 당시의 학생들 중에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어 공부를 못한 학생도 있지만 전란으로 어려워져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불우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도 가르치지 못한 배움의 길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가르치시는 선생님, 낮에는 군업무에 시달리시고 밤에는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와 가르치시는 선생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여건에서도 모든 개인 사정을 송두리째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하시는 선생님, 너무도 힘드시어 코피를 흘리면서도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또 다시 강단에 서 주시는 선생님을 뵈올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또한 선생님의 건강 사정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눈물이 흐른다고 하면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이 엉엉 소리 내어 통곡 바다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런 헌신적인 선생님을 모신 것이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설사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 해도 선생님께서 가자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며 진심어린 사제 간의 우의를 결의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300명의 학생들은 배움에 더욱 열성적이고 적극적이 되었으며, 자신들의 사정과 입장을 돌보지 않고 시간 나는 대로 흙벽돌을 찍어 학교와 제단을 건축하는 데 헌신적으로 협조하였다. 이후 금마 일대에 전도의 불길이 일기 시작하여 제단이 크게 부흥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흥미로운 일도 있었다. 당시 기성 교회 황 박사라는 목사가 부흥 집회를 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참석하였는데 설교 시간 중에 자신만만한 어조로 성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이 죽는 것은 죗값으로 죽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가 우리 인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고 질문을 하였다. 그랬더니 그렇게 당당하게 단상에서 외치던 목사가 많은 기성 교인들 앞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그래서 "죄는 핏속에 있습니다."하고 가르쳐 주니 그는 부흥 집회에 모인 만장한 교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연출한 적도 있었다. 그 외에 두세 가지 질문을 더 하였는데, 결국 이 질문 때문에 부흥이 아니라 해산이 되어버리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그것을 기화로 전도관으로 많은 교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